

박 광 순
kspark@kiet.re.kr

2012년 대내외 여건변화와 해외플랜트 수주전망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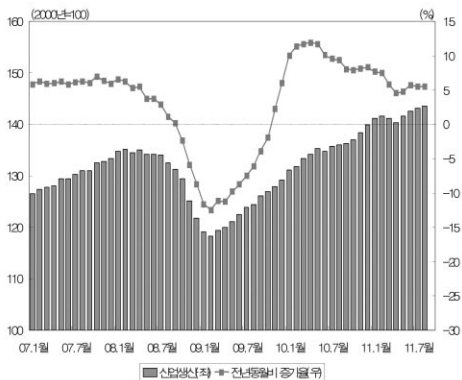
1.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1년 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온 세계경제는 그리스, 이태리 등 EU를 중심으로 선진권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세와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인해 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가 확산되고, 2011년 3월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여파로 일본경기도 급락하면서 세계 실물경기 둔화가 여타 권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2011년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조치(8월)에 이어 유로권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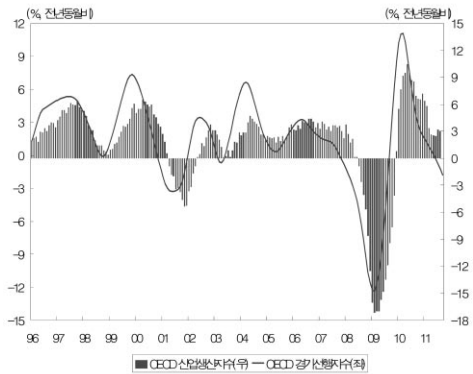
정위기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권의 재정불안에서 비롯된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국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IMF는 선진국권의 부진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권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4.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악화에 따라 선진국권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유로권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유로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선진국권은 2012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a) 세계 산업생산지수



(b) OECD 경기지표

자료 : CPB; OECD

[그림 1] 세계경제 관련지표 추이

<표 1> 주요 권역의 성장률 추이와 2012년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구분	2010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연간(f)	
세계					5.1				4.0	4.0
선진국권	2.5	3.3	3.3	3.0	3.1	2.4	1.6	-	1.6	1.9
미국	2.2 (3.9)	3.3 (3.8)	3.5 (2.5)	3.1 (2.3)	3.0	2.2 (0.4)	1.6 (1.3)	1.6 (2.5)	1.5	1.8
일본	5.7	3.1	5.0	2.2	4.0	-1.0	-1.1	0.0	-0.5	2.3
유로	0.8	2.0	2.0	2.0	1.8	2.4	1.6	1.4	1.6	1.1
개도국권					7.3				6.4	6.1
중국	11.9	10.3	9.6	9.8	10.4	9.7	9.5	9.1	9.5	9.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월) 등

2008 ~ 2009년과 같은 세계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012년은 불확실성이 큰 한 해라고 하겠다.

한편,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 추이와 부진 지속 전망을 반영하여 2011년 3.7%에 이어 2012년 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부진이 2012년 연중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도 추세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2011년 하반기 들어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건설수주는 2011년 3/4분기 들어 2010년 1/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건설허가면적도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건

설투자는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낮은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의 극심한 부진에 대한 반등과 기저효과로 2012년 건설투자는 연간 2% 내외의 플러스 증가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와 아파트 미분양 적체 문제, 건설사 자금난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 공공부문의 재정여력 소진에 따른 SOC 예산 축소 등이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2012년 해외플랜트 수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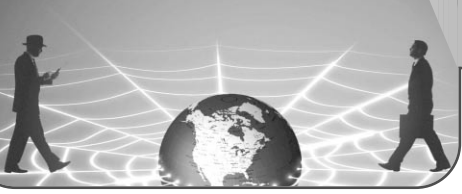
2010년 UAE의 186억 달러에 이르는 원전수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던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2011년에는 발전 및 담수부문, Oil & Gas부문 등의 감소세 전환으로 상당 폭 줄어든

<표 2> 국내 SOC 분야 투자 실적 및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SOC예산 (조원)	18.4	18.4	20.5	25.5 <0.8>	25.1 <3.2>	24.4 <3.1>	22.6 <0.3>
증가율(%)	-	0.0	11.4	24.4	-1.6	-2.8	-7.4

자료 :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발표한 2011년 3/4분기 현재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41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3%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수주액도 2011년 12월 12일 현재 총 470억 1,905만 달러로 전년 동일자대비 30.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UAE의 2010년도 원전 수주액이 단일 프로젝트로 규모가 큰 점도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였으나, 수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2012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플랜트 수주규모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 해외플랜트 수주와 관련하여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우선 세계경기의 둔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2011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주요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의 플랜트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2년 국제유가는 2011년 중동 변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보합 내지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할 때 배럴당 연평균 약 106 ~ 107달러로서 전년대비 약 0.5% 하락이 예상된다.

이외에 우리의 주요 시장인 중동권역의 건설 및 플랜트부문 발주 증가액이 2015년까지 연간 10.5%¹⁾씩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개도국권 전체의 2012년 경제성장률이 6.1%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권역의 민주화 시위 이후 안정적 기조 유지가 지연될 경우, 전후 복구용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될 개연성도 크기 때문이다.

2011년도의 해외플랜트 수주추이, 2012년도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년 해외플랜트 수주규모는 연 500억 ~ 5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 수주 상대국의 여건변화와 전망

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수주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2009년 대폭 감소하였던 GDP 규모와 저조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GDP가 3,697억 달러(2009)에서 3,871억 달러(2010)로 상승하였으며, 경제성장률도 0.4%(2009)에서 2.6%

<표 3> 2012년 국제 원유가 전망 (Dubai유 기준임)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구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Dubai유	105.6 (37.1)	108.5 (36.9)	107.0 (37.0)	104.0 (-1.5)	109.0 (2.7)	106.5 (-0.5)

주 1) 하반기와 연간은 2011년 10월 현재까지의 기준.

2) ()는 각각 전기비 및 전년대비 기준.

1) Global Insight 2011.12.7 D.B. 검색 결과임.

(2010)로 상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에 따라 2008년 1.5%에 그쳤던 건설부문의 실질 GDP성장률이 2009년에 4.7%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6.4%로 나타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경우 세계경기가 회복된 2009년 하반기부터 프로젝트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입찰 추진 및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3월에는 중동 민주화 사태 이후 민심을 달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둘라 국왕은 50만호의 저가주택 건설을 지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천 5백억 SR(약 667억 달러)를 할당한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우디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2011년에도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향후의 전개 방향과 관련해서 사우디 정부는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2009 ~ 2013년)을 수립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8월 각료회의에서 8차 5개년 개발계획 대비 67%가 늘어난 14조 4천억 SR(약 3,840억 달러) 규모의 9차 개발계획(2010 ~ 2014년)을 승인함에 따라 교육, 교통·통신과 전략적 투자분야인 SOC 인프라, 발전·담수 등의 프로젝트 추진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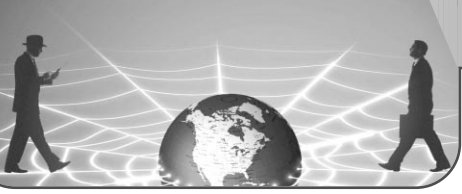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경우 주요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와 사빅(SABIC)이 201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에 약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국내외 경제 및 유가회복에 힘입어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석유관련 부문에 701억 달러(원유 개발 및 생산량 유지 198억 달러, 정유 생산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 503억 달러)를, 가스 부문에는 314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회복세와 관급공사 증가로 UAE도 2009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GDP 규모도 약 150억 달러 정도 증가되고, 외환보유액도 약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7년 이후 10%대를 기록한 높은 물가상승률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바이의 경우,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작(Public - Private Partnership)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아부다비 정부 혹은 UAE 연방 정부의 지급보증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바이 부동산 및 건설시장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부정적 요소이다. 두바이월드 자회사인 Nakheel, Limitless 등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구조조정 중이며, 최근 주베이라 파크 개발 프로젝트 일부를 재개하는 등 선별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는 민자유치로 중동지역의 물류, 금융 및 관광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10%(978억 배럴)를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인프라 및 석유·천연가스,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부다비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투자계획을 유지하면서 전력, 교통 등 인프라 구축·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UAE 건설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부다비의 경우, 향후 석유화학 부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으나 2009년도까지 석유·가스 업스트림 및 정유 프로젝트를 다수 발주하여 2012 ~ 2013년 이전에는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두바이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부동산시장은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확보를 목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건설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UAE는 향후 202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7%를 원자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들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맺음말

해외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의 수주규모에 걸맞는 정부의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해외플랜트 시장 진출확대에 따른 국가적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플랜트 해외수주액은 645억 달러로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최대 수출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R&D 예산 중 플랜트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플랜트산업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프로젝트 초기의 타당성 기획 검토능력 등을 제고하는 등 프로젝트 주 계약자로서의 경쟁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플랜트 수요를 가능할 수 있는 개도권의 성장률이 2010년 7.3%에서 2011년에 6.4%로 둔화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이보다 낮은 6.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두바이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여전히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적 관점에서 산유국들의 발주여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플랜트 시장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주활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업체끼리의 불필요한 경쟁 지양과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현지인 채용의무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주의해

야 할 요소이다. 사우디 노동부가 2011년 6월 11일 발표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강화정책 즉 Nitaqat은 사회보장보험(General Organization of Social Insurance, GOSI)제도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사우디인 고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노동부가 사우디인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정책 즉 Nitaqat을 발표, 동 정책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최근에 수주한 국내 A사의 경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피크 때 인력이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Nitaqat 규정에 의할 경우 사우디인 현지 인력이 전체의 10%인 700명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우디 현지인력의 전문성이나 경쟁력 그리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사우디인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현지인력 조달 애로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하도급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itaqat 제도는 관련 기업들의 현장 기준으로 Saudization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여러 개의 해외건설 및 플랜트 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중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사우디 주요기관의 인력제도를 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발주처인 ARAMCO의 경우, Saudization 즉 사우디인 의무고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낙찰 조건으로 사우디인력 15%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낙찰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사우디 정부기관 출입을 담당하는 인력 즉 PRO(Public Relation Officer)는 반드시 100% 사우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 세무서, 관세청 등이 모두 해당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KIPIC)